

도서관계의 경향과 사서직 교육의 변화

엄 영 애 *

〈 목 차 〉

- I. 서론
- II. 라이브러리안십, 도큐멘테이션, 정보학과 도서관정보학
- III. 미국의 정보기술(IT)과 사서직교육의 변화
- IV. 도서관계의 경향
- V. 사서직교육의 변화
- VI. 결론
- Abstract

I. 서론

사서직 교육은 문자 그대로 사서직에 요구되는 지식과 이론 그리고 기술까지도 함께 가르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지향할 목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서를 배출하는 것이다. 도서관학이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차자료나 주요 주제명 표목표들은 사서교육과 이에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에 **Library Education** (Sears and L.C. Subject Headings), **Education for Librarianship** (Library Literature), 또는 **Profession**을 EDUCATION AND TRAINING (LISA)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 교수

2 圖書館學論集(第 29輯)

으로 세분한 표목들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도서관학과의 교육”으로 그리고 현재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으로 사용되는 경향이다.

사서직의 교육이 사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러한 지식과 기술은 사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사서직의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기대되는 봉사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그러한 기능과 봉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이용 가능한 기술과 방법에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서직교육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실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정의 사서교육을 받고 사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질 수 있다. 그 중에서 셰라(Jesse H. Shera)가 주장한 이론은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모든 형태의 기록자료와 이용자를 맺어주는 사서들의 역할에서 파생된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이다. 물론 기록자료와 이용자의 연결이라는 단순한 표현 배후에는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 중에서 이용자들의 필요나 요구 그리고 수준까지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자료의 제공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판단 및 결정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자료와 이용자의 연결행위를 통해서 도서관은 개인의 다양한 요구, 즉 지식과 정보의 필요성에서부터 교양이나 오락적인 목적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적인 기록자료에 대한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사회적인 실행기관으로서 그 존재의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도서관법에서부터 현재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각종 도서관의 정의와 업무 및 사서직의 자격요건까지도 명시하고 있으나 사서직의 정의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시 말해서 사서들에게 기대되는 전문직으로서의 독특한 기능과 업무에 관한 한 우리의 상황에 알맞는 고유한 사서들의 임무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직의 정의는 외국의 용어집에 정의된 것과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그들이 종사하는 도서관 현장의

상황은 도서관 문화가 자리잡은 나라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이나 용어집이 정의한 도서관의 정의와 업무들도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부과정의 사서직 교육이 40여년 전에 시작이 되고,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에 결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서직의 자격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에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도서관법이 제정된 것도 거의 4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비록 우리 사회가 경험한 경제적 혹은 기술적인 변화의 정도와 비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도서관계도 수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 그리고 봉사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사서직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에도 꽤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과거 40여년 동안 도서관계의 주요 활동과 관심사는 어떻게 변해 왔으며 사서직을 배출할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들은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본 논문은 학부과정으로 사서직의 교육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도서관계의 경향과 사서직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난 40년동안 도서관계는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을 해 왔으며 사서직의 교육을 담당하는 도서관학과와 문헌정보학과는 이러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당면 과제에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가?를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종종 우리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탄하는 현상, 즉 도서관들이 다른 분야의 기록이나 역사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충실한 반면, 스스로의 기록을 보존하는 데는 소홀한 감마저 있다는 아이러니와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일차자료와 문헌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의 분석과 정리에 대한 관심은 많이 결여된 느낌이 든다. 즉 우리 분야 활동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리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향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도서관 현장에서의 활동과 변화가 도서관학과 혹은 문헌정보학과와 교육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 왔는지, 혹은 전혀 무관했던지, 아니면 사서직 교육의 결과가 도서관 현장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도서관과 사서직 교육의 변화를 비교해 보려는 시도는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

본적인 기능과 구체적인 봉사는 사서직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록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낸 모든 기록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보존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시키는 것이 도서관의 영구 불변하는 본질적인 기능이고 그 기능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사서라는 개념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동안의 미국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관련된 도서관계의 동향과 사서직 교육의 경향을 살펴 보았다. 도서관 봉사와 사서직의 교육에서 보다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의 상황을 우리의 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과 사서직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발달모형 혹은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필자가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사서직 교육을 비교한 논문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세나라가 모두 미국의 사서직 교육제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공유하고 있으나 몇십년이 지난 현재에는 각국의 교육이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및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어느 분야의 교육제도이건 그것은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고 특히 사서직의 교육은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교육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또 하나의 이론이다.

또한 Col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학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현실로 도서관의 사회적 위치, 사서의 업무, 도서관학 교육기관의 특성과 상황 및 정보기술¹⁾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정보기술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적으로 밀어닥친 정보기술의 범람은 누구나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정보기술의 보급이 정보사회의 도래인양 착각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보기술이 정보사회의 주요 요건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무엇을 전

1) John Calvin Colson, "Professional Ideals and Social Realities: Some Questions about the Education of Librarian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XXI (Fall, 1980), 92.

달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정보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Buckland는 도서관 업무의 변화는 도서관 가치관, 기술 그리고 도서관학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²⁾ 여기에서 도서관 가치관이란 사회가 도서관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가?하는 것으로 이는 도서관 정책이나 도서관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문화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업무에 사용되는 도서관의 기술은 도서관 봉사와 운영 및 관리에 사용되는 처리기술이나 도구로 도서관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필요한 것이다. 도서관학은 도서관 봉사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도서관의 본질과 정보봉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론, 원칙, 역사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중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기술이고, 그 변화에 따른 도서관 봉사에 대한 이해도 변할 것이나 그 정도는 기술의 변화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는 더더욱 느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편재되어 사용이 보편화 된 정보기술이 도서관계 뿐 아니라 사서직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기술에 도서관계나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계와 사서직 교육의 관계, 혹은 도서관과 교육의 변화 양상의 파악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도서관 현장의 경향이나 사서직 교육의 변화 양상을 기록하는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Michael Buckland,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n the Next Century," *Library Trends*, XXXIV (Spring, 1987), 781.

II. 라이브러리안십, 도서관학, 도큐멘테이션, 정보학과 도서관정보학

도서관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진술이나 주장들은 별 의의없이 수긍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도서관학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분명히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대학에서 사서직 교육을 시작한 1887년으로 도서관학의 기원을 잡는다.

이는 아마도 대학에서의 교육이 현장의 교육과는 달리 도서관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고, 가르치고 만들어 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듀이(Melvil Dewey)의 교육 이전에도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훌륭한 연구와 이에 따른 이론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School of Library Economy로 출발한 미국 사서직 교육기관들은 School of Librarianship이라는 명칭을 상당기간 유지하였다. ALA의 용어집(1983)이 정의한 라이브러리안십의 의미는 “매체에 대한 지식의 적용과, 도서관 장서의 구성, 보존, 조직 및 이용과, 매체를 통한 정보유통에 공헌하는 원리, 이론, 기법 및 기술과 관련된 전문직”으로 교육기관들이 학문의 명칭이 아닌 직업명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한 용어집 가운데 가장 오래 전에 출판된 ALA 용어집(1943)은 같은 용어를 “도서에 대한 지식과 특정 원칙과 이론 및 기법을 도서관의 장서와 기타 자료들을 설립, 보존, 조직 그리고 이용과 함께 도서관 봉사의 확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가 펴낸 도서관용어집(1966)은 도서관 전문직 (Library Profession)을 “도서관법 및 관계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자로서 도서관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한 바 있다.

도서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를 가진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은 1940년대에 와서야 발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다 정확히는 1928년에 University of Chicago에 Graduate Library School이 설립된 후 연구에 관심을 갖고 도서관의 문제해결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학이 타 분야와 동등하게 대학사회에서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³⁾ 사서직 교육이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정으로 시작된 후에도 이들은 도서관과 도서관직에 관련된 분야가 science나 art나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science로서의 도서관학에 대하여 관심이나 매력을 갖기 보다는 사서직의 자부심이 더 강세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도서관학이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도 대다수의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명칭에 라이브러리안십을 상당기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1940년대의 ALA 용어집이 도서관학을 “인쇄기록과 필사기록들을 확인, 수집, 조직 및 활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지식과 기술”로 정의한 반면에 1980년대에 출판된 ALA 용어집은 “특정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된 정보를 선택, 수집, 조직 및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근래에 영국에서 간행된 Harrod's Librarians' Glossary(1987, 1995)는 도서관학을 “도서관과 정보부서에 대한 연구 즉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적인 역할, 이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업무와 절차 및 역사와 앞으로의 발전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에 관한 연구로 도서관의 역사에서부터 기능, 봉사와 더불어 사서직과 관련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용어집이 1970년대에 정의한 것은 “도서관과 아울러 소장 자료의 운영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다.

미국의 사서직 교육기관들이 도큐멘테이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ADI)의 첫 기관지가 나오기 시작한 1950년이다. 즉 이 해에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도서관학교과가 처음으로 Documentation과목을 개설하였다.⁴⁾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의 도큐멘테이션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든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다. 이 용어는 1890년대 말에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FID)의 전신인 International Institute of Biblio-

3) Young Ai Um, "Library Education i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 A Comparative Study," (Ph. D. thesis, Loughborough University, 1987), p. 7.

4) Jesse 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New York : Becker and Hayes, 1972), p. 286.

graphy의 창시자 중의 한사람인 Otlet가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도큐멘테이션을 "인류의 지식에 공헌하는 모든 기록자료인 문헌(documents)-도서, 잡지, 신문, 서지, 정부의 행정기록, 특허, 상품목록, 색인, 초록, 리뷰-에 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⁵⁾ 라이브러리언십이 도서와 도서관의 낱양스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도큐멘테이션은 문헌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문헌은 다양한 형태의 모든 기록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큐멘테이션 과목이 사서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비록 긴 기간동안은 아니더라도 꽤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37년에 설립된 ADI의 설립과 더불어 마이크로 필름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공동 관심으로 인하여 도서관 관계자, 과학자 및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도 도큐멘테이션으로 불리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⁶⁾ 또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초기에 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 그 기술이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나타나기 시작한 모든 미비한 점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정보의 검색 및 축적을 위한 실험적인 기계시스템의 개발과 아울러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분야가 보다 폭 넓게 전개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도서관직의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면을 대치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이론적이며 동시에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말았다고 한다.⁷⁾

1980년대 ALA의 용어집에 정의된 도큐멘테이션은 광의로는 "전문분야, 특히

5) W. Boyd Raywar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Library History*, XX (Spring, 1985), 123.

6) *ibid.*, p. 125.

7) W. Boyd Rayward, "The Problem of Connections: Education for the Practice of Librarianship," *Journal of Librarianship*, XVI (July, 1984), 164.

과학과 기술분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조직, 축적, 검색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헌의 수집, 조직, 검색 및 배포”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1940년대의 정의와 별로 다르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 도큐멘테이션이 정보학으로 대치된 반면에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Librarians' Glossary(1987, 1995)는 도큐멘테이션을 “정보, 특히 과학분야의 보고서나 유사 출판자료, 통계 등의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도큐멘테이션 기법의 출현은 문헌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양이 팽창하는 한편, 문헌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의 개발과 보급으로 야기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미국에는 전문정보회사가 많이 설립되고 기존의 조직체들은 연구부서를 설치하면서 정보검색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 즉 연구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수학, 컴퓨터 기술, 전자공학 그리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이론을 도입하여 하나로 통합된 연구분야로 출발시킨 것이다.⁸⁾ 1965년에 이 분야의 선도 역할을 한 Borko는 정보학을 “수학과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기타 정보처리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인 분야; 사서, 논리학자, 언어학자, 엔지니어, 수학자, 행동과학자의 노력과 기술을 포함하는 학제적인 학문이다. 정보학의 적용은 정보시스템에 나타나고 정보학의 역할은 현존의 시스템이 근거로 할 수 있는 개념적이고도 방법론적인 기반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⁹⁾

1968년에 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에서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ASIS)로 명칭을 바꾸고 본 학회를 “과학, 학술 및 교육적인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전문단체로 정보와 정보전달에 관련된 지식의 생산, 조직, 배포 및 적용에 이바지하는 조직”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에 정보학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¹⁰⁾ Librarians' Glossary(1977)는 정보학을 “정보의 특성과 움직임,

8) Raywar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 130.

9) *ibid.*, p.131.

10) Margaret F. Stieg, *Change and Challeng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Chicago : ALA, 1992), P. 12.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세력과 더불어 최적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위한 정보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1980년대에 ALA가 내린 정보학의 정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의 생성,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연구"다. Librarians' Glossary의 최근 정의는 "정보의 사용, 정보원 및 정보의 개발에 대한 연구로 보통 정보의 처리나 배포에서부터 과학, 산업 그리고 전문도서관과 정보부서의 역할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정보학을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다시 말해서 정보의 생성, 흐름(입수, 색인, 축적, 검색 및 평가), 그리고 이용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로 보고, 도서관학을 정보 사이클에서의 수집, 색인 및 조직, 축적, 검색 및 평가부분들이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수행될 때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¹¹⁾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관계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이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정보학을 라이브러리안십의 한 분야로 받아들이거나 정보학을 모든 정보전문직의 이론적인 근거로 인정하면서 라이브러리안십을 정보학의 한 적용분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¹²⁾

세라는 정보학을 하나의 연구분야로 보고 사서들이 도서관 봉사를 보다 잘 수행하도록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야로 결론지었다.¹³⁾

미국이나 영국에서 library science보다는 library study를 선호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정보학의 출현과 때를 맞추어서 정보학관련 과목들이 사서직 교육프로그램의 교과과정에 개설되기 시작된 후에 1970년대에 들어서서 교육기관의 명칭에도 정보학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도서관학과 달리 정보학은 science로서 아무런 의문이나 거부감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교육기관들도 부담없이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많은 교육기관들이 School of Librarianship에서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대학의 학과로 설립될 때부터

11) Lawrence W. S. Aulad, "Seven Imperatives for Library Education," *Library Journal*, CXV (May 1, 1990), 57.

12) Stieg, *op. cit.*, p. 13.

13) *ibid.*, p. 14.

도서관학 즉 library science를 사용한 우리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은 이제는 하나의 통합된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인 것이다.¹⁴⁾ 과거에는 도서관학과 정보학 각각의 개념들을 합쳐서 도서관·정보학(우리나라에서는 문헌정보학으로 불리움)의 의미를 이해했으나 현재에는 단일 개념이 된 것이다. Librarians' Glossary(1995)는 LIS를 "기관을 기반으로 하거나 하지 않던가에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의 사용과 개발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도서관이라는 극히 제한된 환경에 국한시켰던 정보봉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일과 관련된 분야로 보편 될 것이다. 분명히 도서관학이나 정보학보다는 광의의 개념임에 틀림이 없다.

III. 미국의 정보기술(IT)과 사서직 교육의 변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정보를 한정해서 보는 관점 즉 정보로 표현되는 것들을 만들어 내고, 처리하고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에서 출발하였다. 텔레코뮤니케이션, 컴퓨터공학, 데이터 처리 및 사무기기산업 등이 그 예들이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의 적용범위까지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기술의 다양한 정의 중에는 "정보의 수집, 축적, 처리, 배포 및 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14) Harold Borko,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XXXV (May, 1984), 185.

인간의 중요성, 인간이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채택한 목적, 이러한 선택에 적용된 가치관,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는지, 기술에 의해서 보다 풍요로워 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평가기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정의와 “정보를 다루고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과학, 기술 및 공학분야와 관리기법; 이들의 적용; 컴퓨터와 더불어 컴퓨터와 인간, 그리고 컴퓨터와 기계의 상호작용; 이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등이 포함된다.¹⁵⁾

미국의 도서관은 유럽의 문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양으로 하여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배경을 갖고 있다. 사서직의 교육도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그 도서관을 관리해 나갈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의식이 확인되고 널리 퍼져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방안으로 공식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사서직 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의 교수진들은 현장의 사서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요한 것은 사서직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도서관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사실이다. 이는 비록 부분적이라도 사서직의 교육이 도서관 현장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실증하는 것이다.

1. 정보기술의 변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미국의 정보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1950년대에 이미 미국의 사서들은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자료를 보존하거나 장소를 절약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형태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오늘날의 PC와는 여러 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정보를 다루거나 도서관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15) Peter Zorkoczy, *Information Technology : An Introduction* (London : Pitman, 1990), p. 12.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사서들이 업무의 기계화에 관심을 가졌다. 제록스로 불리었던 복사기술도 이미 보급되어 있었다. 정보학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도큐멘테이션 기법과 정보의 배포, 기계번역, 조합색인 및 데이터 처리 등에도 이미 사서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의 눈에 띄는 기술적인 변화는 컴퓨터 조판기술이 개발되어 누구나 손쉽게 출판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출판물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ystem(NATIS)과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learinghouse(ERIC) 등을 포함하여 정보분석센터들이 많이 설립된 것도 1960년대의 일들이었다. 당시의 사서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들은 인용색인과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SDI) 이었고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도 1960년대부터 수행되었다. 정보학 분야의 이론, 예를 들어서 정보의 이동과 공유의 최적방법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보의 기계검색을 위한 도구로 Thesauri들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크기는 이전의 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작으나 성능면에서는 보다 우세하고 가격은 저렴한 미니컴퓨터가 출현하여 사무자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서관에서도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싱 능력에는 새삼스럽게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워드 프로세싱이 많이 보급 사용된 것도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에 DIALOG을 비롯한 대규모의 상업용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가 가동됨에 따라 단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검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컴퓨터 터미널끼리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정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봉사료 징수 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정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되어 논의 될 수 없는 문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도 미해결의 문제일 것이다.

1980년대의 정보기술의 발전은 현재 보편적으로 익숙해진 기술로 지금까지 지속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계나 정보학 분야에 뿐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친 발명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PC)가 그 대표적인 예다. 어느 분야 못지 않게 PC의 출현을 환영하고 많이 활용한 곳이 도서관과 정보관련 분야일 것이다. 어쩌면 PC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 업무와 봉사에 영향을 미친 기술이 비디오와 CD-ROM, 그리고 팩스 전송기법이다. 즉 VCR (videocassette recorder/player)의 이용 가능성은 도서관이 비디오자료를 수집해서 이용시킴으로써 봉사의 폭을 넓히고 소형의 디스크에 수많은 정보가 수록되는 CD-ROM은 도서관들이 통신 비용이나 정보의 손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도 이용자들에게 대량의 기계가독형 정보파일에 접근이 가능토록 하였다. FAX는 꽤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나 도서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80년대 말에야 가능해졌다고 한다. 도서관의 봉사면에서 뿐 아니라 관리나 운영 면에서도 획기적인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도서관들이 터미날로 전송된 정보를 디스크에 축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다른 말로 다운 로딩의 기법은 도서관 및 정보관련 분야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1980년대의 성과이다.¹⁶⁾

2. 사서직 교육의 변화

1950년대는 미국의 사서직 교육이 대학원 과정으로 정착된 시기이다. 즉 1951년에 개정된 도서관학교 인가기준(Standards for Accreditation)은 대학원 과정의 사서직 교육프로그램만을 인가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문직 사서의 자격이 석사 학위로 공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2년에 Columbia대학교에, 1956년에 Western Reserve대학교에 그리고 1959년에 Berkely대학교에 도서관학의 박사과정이 설치된 것은 도서관학이 학문적으로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학 과목이 처음 개설

16) Bruce A. Shuman, Foundations and Issu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2), pp. 17-23.

된 것도 1950년대 말이었다. 즉 1959년에 UCLA가 Robert M. Hays 교수의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정보학과목이 사서직 교육의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게된 효시가 된 것이다.¹⁷⁾

1960년대의 경향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 정보학 과목들이 개설되고, 인가받은 학교들의 교과과정은 전통적인 도서관학의 교과과정인 참고봉사, 분류 편목, 도서관 행정 및 정보학으로 짜여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1972년에 ALA가 사서직 교육기관의 인가를 위하여 제정한 기준을 개정한 것이 주요 사항으로 꼽힐 수 있다. 1951년에 도서관학의 석사학위를 도서관 전문직의 기본학위로 결정한 후에 20여년 만에 처음 개정한 것이다. 정보학 과목들이 사서직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과목들로 자리를 잡고 교육기관들이 학교의 명칭을 School of Librarianship에서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이후에 증가하던 사서직 교육기관들이 다양한 요인,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폐교를 결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의 일로서 1978년에 Oregon대학의 도서관학교가 문을 닫은 후부터이다. 1970년대에 사서직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던 정보학 과목들은 Library Automation,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Abstracting and Indexing, Thesauri, Information Networks 그리고 Searching Methods들이다.¹⁸⁾

1980년대의 주요 경향은 많은 교육기관들이 명칭에 Information을 포함시켜서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LIS)로 부르게 된 것이다. 정보학이 사서직 교육에서 도서관학과 동등하게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직의 교육에 정보학과목들이 필수적인 분야가 된 것이다. 폐교의 원인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사서직 교육기관의 폐교가 가장 많았던 것은 1980년대의 일이었다. 미국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긴축정책은 도서관과 정보부서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사서직의 취업전망도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17) Patricia G. Reeling and Jana Varlejs, ed., *Education for Library/Information Profession Strategies for the Mid-1990s* (Jefferson, North Carolina: McFarland, 1993), p. 75.

18) Howard Fosdick, "Trends in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Special Libraries*, LXXIV (October, 1984), 293.

무엇보다도 대학사회에서의 도서관학교나 도서관정보학교의 규모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 소규모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폐교의 원인으로 꼽혀진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새롭게 개설된 과목들은 Microcomputers, Database Management Systems, Networking, Office Technologies, Word Processing 및 Videodiscs 등이다.¹⁹⁾

1990년대가 아직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사서직 교육기관의 폐교가 1990년대 초까지 발생한 후에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72년에 개정되었던 교육기관의 인기기준이 1992년에 Standards for Accredi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 Information Studies로 개정되어 199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도 20년만의 작업으로 주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 개설된 과목들은 Online Searching, Information Policy,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그리고 Telecommunications 정도이다.

정보기술이 사서직 교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사서직 교육이 정보기술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를 이상의 개략적인 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 무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서직 교육은 현장에서의 기술도입을 교육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online databases와 networks가 도서관과 정보관련 분야의 주요 관심사였던 반면에 1970년대의 교육기관들이 thesauri와 information networks를 가르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한 것처럼 보인다. 교육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정보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고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경우에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서직 교육은 정보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보인다.

19) *ibid.*, p. 301.

IV. 도서관계의 경향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된 1950년대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련을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한국 전쟁의 발발로 시작되었다. 3년여 동안의 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들어간 1953년 이후의 어려웠던 시기에 국민이나 정부 모두 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질 기력조차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도서관 건물, 자료 그리고 도서관인들의 손실일 것이다.

1950년대에 도서관계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었던 것은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의 창립이다.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에서 누구나가 쉽게 동의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직업인들이 어렵지 않게 동참할 수 있는 특징이 구성원들이 그들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전문직의 지위 확보를 위하여 전문 협회를 결성하는 것이다. 도서관인들이 협회를 결성한 것은 사서직의 권익이나 사기에 관련될 뿐 아니라 도서관의 업무개선과 봉사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인들이 협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이미 1940년대부터 존재하였다. 1947년에 처음으로 총회를 열었으나 조선도서관협회로 조직된 것은 1945년의 일이었다. 그후 1949년에 한국도서관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한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협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했고 1955년에 새롭게 재조직된 것이다. 1952년에 경상남도의 진주여자고등학교가 처음으로 반개가제의 학교도서관을 만든 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경남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도 1950년대 도서관계의 주요 업적이다.

도서관협회가 발간한 한국도서관일람표에 따르면 1955년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공공도서관이 12개관, 대학도서관이 43개관, 학교도서관은 보고된 곳이 없었고 특수도서관이 15개관으로 총 70개의 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도서관의 직원은 공공도서관 113명, 대학도서관 207명, 그리고 특수도서관에 103명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423명의 도서관 직원이 있었다. 1955년에 창립된

도서관협회는 1957년부터 도협월보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에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 것은 1960년대 도서관계의 괄목할만한 일들이었다. 이 법들의 제정으로 국립 및 국회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사서직원과 사서교사의 자격이 법으로 정해졌고, 학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물론 법조항에 문제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지금의 새마을문고의 전신인 마을문고 보급을 위한 수단법인 마을문고 진흥회가 설립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이는 1950년대 말에 엄대섭선생에 의하여 서점이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농촌 사람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운동으로 출발한 민간차원의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보급된 것으로 외국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1960년대의 특기할만한 업적들 중에는 국립도서관의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여 서지작업을 비롯한 기타 주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의 서지사업으로 1962년부터 문헌정보를, 1963년부터는 대한민국 출판물총목록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국회도서관도 1964년부터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그리고 1969년부터 석 박사학위논문총목록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도 1964년에 우리나라의 것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목록규칙을 간행하였고 1965년에는 한국심진분류법을 출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도 1963년부터 출판년감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학술원의 학술총람도 1966년부터 간행되었다.

Unesco의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가 1962년에 설립되고 미국의 지원으로 과학기술연구소(KIST)가 1966년에 설립됨으로서 여러 분야 연구소 설립의 막을 연 것은 1960년대의 일이었다. 따라서 연구소에 소속된 특수도서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국립도서관의 서지작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서 우리나라의 주요 도서관들이 입수하는 외국도서종합목록을 197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

였고, 1973년부터는 학술도서의 종합목록인 학술논저 종합색인을 출판하고 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의 목록인 고서목록 및 귀중본의 해제목록들이 발간되었다.

교육개발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소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이 주로 1970년대의 일로 연구소들의 설립과 더불어 연구소의 특수도서관들이 많이 설립된 것을 1970년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됨과 아울러 기업체의 성장으로 기업체의 자료실, 정보실이 많이 설립된 것도 이 시기이다.

도서관계가 도서관의 업무 자동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의 업무전산화연구를 수행한 것이 1976년도의 일이고 국회도서관도 1978년에 업무전산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회도서관은 1977년에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컴퓨터시스템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IFLA Worldwide Seminar가 “도서관 자원과 국가발전”이란 주제로 1976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사실도 1970년대의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전문도서관들이 도서관업무의 자동화 준비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한편으로 극소수의 도서관들이 업무자동화에 성공하고 전문도서관의 업무 일부분에 전산화를 달성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하나의 예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전산실이 설치되고 KORMARC가 개발된 것이 1982년의 일이고, 이 도서관에 컴퓨터가 도입 설치된 것은 1988년도였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 도서관의 “전산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도 후반의 일이다.

국회,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소속된 주요 도서관들이 일부 업무를 전산화하고, on-line search system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는 도서관들이 업무전산화에 관심을 가진 시기로 볼 수 있다. 1987년에는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1991년에 도서관 진흥법이 새롭게 공포되고 도서관 정책 및 행정업무와 국립도서관의 소속을 문화부가 담당하게 되고, 도서관 정책과가 설치됨으로써 도서관 발전의 변화가 올 구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2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콤의 천리안 II를 통하여 목록의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정보의 온라인 시대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들과 공공도서관들이 PC를 이용하여서 비록 토털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업무의 자동화를 달성하였다.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그 실행도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Internet의 보급과 많은 도서관들이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OPACs)를 채택한 결과이다.

도서관진흥법이 또 다시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으로 공포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들 까지도 그들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거나, 명칭을 변경한 것도 1990년대의 간과할 수 없는 현상들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단 도서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선진국들이 이미 전부터 이용하고 있던 정보기술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앞에서 언급된 컴퓨터나 OPACs 이외에도 복사기, FAX 그리고 CD-ROM 등을 사용하고 있다.

〈표 1〉 도서관과 사서직원 수의 증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연도	도서관수(직원수)	도서관수(직원수)	도서관수(직원수)	도서관수(직원수)
1955	12 (113)	-	42(207)	15(103)
1965	49 (412)	1,422(1,424)	109 (838)	71 (472)
1975	108 (782)	3,954 (3,349)	136 (1,255)	96 (632)
1986	168 (2,078)	4,758 (911)	262 (2,844)	247 (1,004)
1995	304 (1,440)	6,656 (660)	378 (3,766)	418 (1,736)

출처 :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해당년도)

V. 사서직 교육의 변화

전문직이라는 것은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그러한 지식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 가르쳐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사서직을 양성하는 교육을 어느 수준의 교육기관이 담당하느냐 하는 것은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련되는 것으로 사서직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서 도서관학 교육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55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부전공과목으로 학부의 3·4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12학점의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그 후 1957년에 연세대학교가 도서관학과를 설립함으로써 학부 수준의 사서직 교육이 정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2년 후에 학과를 개설한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학안내에 도서관학을 “학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이용법을 가르치고 가장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을 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학문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학과의 교육 목표를 “도서관학의 이론을 근거로 하고 기술면을 중시하여 이론 및 기술을 겸비한 유능한 사서 양성”으로 진술하였다.

학부과정의 교육이 195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므로 1950년대의 사서직교육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사서교육이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1963년에 도서관법이 제정되고, 사서의 자격요건을 성문화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학에 설치된 도서관학과가 사서양성의 주 임무를 띄게 되었다.

1963년에 중앙대학교가, 그리고 1964년에 성균관대학교가 도서관학과를 개설하였다. 1960년대의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을 “모든 기록 즉 축적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부단히 유통 전달시킴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로 정의하고 학과의 목표를 이론과 실무를 겸한 새로운 전문직 사서교육으로 명시하였다. 즉 교육 문화 및 도서관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60년대의

교육은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즉 도서관의 자료선택, 분류 편목, 참고봉사, 서지 및 도서관 운영관련 과목들이 주를 이루었다. 1966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도큐멘테이션과목을 개설한 것이 오늘날의 정보학 과목들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까지의 사서직 교육은 서울에 소재한 4개의 사립 종합대학들이 우리나라 전역의 도서관에서 봉사할 사서들을 양성했던 때였다.

1974년에 대구에 소재한 경북대학교의 도서관학과 설립은 국립대학교로 또 지방의 종합대학으로 학과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주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경북대학교 이외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위시한 5개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개설되었다. 1970년대의 학문의 정의나 학과의 목표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1971년에 성균관대학교가 석사과정을 시작한 후에 1972년에는 중앙대학교, 1975년에 연세대학교, 그리고 1978년에 경북대학교가 석사과정을 시작함과 아울러 1974년에 성균관대학교에 도서관학의 박사과정이 개설됨으로써, 도서관학이 학문으로 정착되고 대학사회에서 다른 학문들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에는 정보학과목들이 학과의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즉 도서관자동화, 정보검색, 초록 및 색인법, 컴퓨터 관련과목 및 컴퓨터정보처리 등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서직 교육에만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고 학과별이 아닌 계열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시도가 있었다.

1980년대의 두드러진 변화는 도서관학과의 증가로 볼 수 있다. 1980년도 한해에만 대구의 계명대학교를 포함하여 모두 8개의 4년제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개설되었다. 현재의 32개학과 중에서 20개의 학과가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1980년대는 도서관학과 증가의 시기로 부를 수 있다.

1984년 전남대학교가 학과의 명칭을 문헌정보학과로 바꾼 다음에 학과명칭의 변경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정보학과 도서관자동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교과과정에 보다 많은 정보학 과목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달리 거의 모든 학과들

이 도서관 자동화 (기계화), (컴퓨터)정보처리법, 색인 및 초록(법), 정보검색 과목들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학과의 정의도 도서관 대신에 문헌정보나 정보학을 많이 포함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도서관학과는 현장 요구에 따른 지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힌다”, “...문헌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전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요청하고 있어, 문헌정보학을 취급하는 도서관학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라든가 “도서관학은 기록정보의 효과적인 이용 또는 전달을 위한 통괄 수단과 방법을 규명하는 다양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이 그 예들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학과들이 정보화 사회나 정보학이라는 용어를 학과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향은 있었으나 학과의 교육목표는 대부분 사서직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했다. 예를 들면,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지는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의 효과적 연계를 이룩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유능한 사서를 배출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1980년대 도서관학과들의 교육목표는 일반적으로 사서교육이나 도서관 전문인의 교육으로 표현될 수 있다.²⁰⁾

1990년대는 도서관진흥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발효로 사서의 자격요건에 커다란 변화가 온 시기이다. 과거에 준사서와 정사서로 구분되던 사서의 자격이 정사서의 경우에 2급 정사서와 1급 정사서로 구분되었다. 이는 사서직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사서직의 교육에 학부의 과정만이 아니라 대학원들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거의 모든 학과가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 학과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안내나 요람에서도 도서관학이나 사서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다.

가장 최초로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전남대학교의 요람에는 문헌정보

20) 엄영애, “문헌정보학과 교육의 변화,” **도서관**(1995 봄), 42.

학을 “전 세계의 지식,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모든 분야의 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 배포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리와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학과 명칭을 변경한 이화여자대학교는 문헌정보학을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띤 학문이며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학문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문헌정보학과와 교육목적을 정보전문가, 전문가, 정보전문사서 등의 양성으로 하고 있다. 사서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도서관이나 직업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는 인상이다.

예를 들어 “정보자원의 생산 선정 조직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정보전달과 조직에 관한 이론 방법 및 응용력, 정보처리업무, 이용능력, 컴퓨터와 정보축적 및 배포의 기법을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라든가, “...전통적 수단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헌정보학의 방법을 이해, 향상 내지 개발하고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등이 그 예들이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교과과정에도 정보학 과목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새로운 과목들이 많이 등장했다. 정보시스템론, 시스템 분석론, 정보커뮤니케이션론, 뉴미디어론, 마이크로컴퓨터 응용, 정보정책론, 데이터베이스관리론, 정보수학, 전자매체론 등이 그 예들이다. 1980년대의 정보학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던 평균 비율이 16.6%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미 19.5%로 3%나 증가하였으며²¹⁾ 이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사서직 교육의 변화로 대학교육 전체의 관심과 아울러 우려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학부제와 복수전공제의 실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 상조일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기로 한다.

21) *ibid.*, p. 44.

VI. 결 론

1950년의 도서관계의 업적은 도서관협회를 새롭게 조직한 것과 경남지방에서 일어난 학교도서관운동으로 도서관인들의 자각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사서직의 교육면에서는 학부과정의 사서직 교육이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도서관계의 경향은 도서관법의 제정으로 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다. 아울러 국립도서관을 위시한 여러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서지사업에 착수한 때이다.

교육의 경우에도 법률이 사서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줌으로써 도서관학파들이 사서직 교육 주체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한 것이다. 또한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도서관학과 설립을 주요한 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1970년대의 도서관계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 각종 연구소의 설립과, 경제발전에 발을 맞추어 많은 기업체가 설립됨에 따라서 이들 기관에 소속된 특수전문도서관들이 많이 설립되는 양상을 맞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서 전문도서관을 시작으로 도서관 자동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사서직 교육면에서는 지방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되고 석, 박사 과정이 생김으로 도서관학이 학문으로 보다 공고하게 자리를 잡은 시기로 볼 수 있다. 정보학 과목들이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80년대에 도서관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도서관의 업무자동화였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인 때이기도 하지만 토털 시스템을 성공시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도서관법의 첫 개정이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 1980년대는 사서직 교육기관의 급 증가시기 ; 학과명칭의 변경이 시작된 시기 그리고 정보학 과목들이 학과의 교과과정에 자리를 잡은 시기로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관중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PC를 사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한 시기이다. 정보의 온라인 검색 및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최신의 정보기술을 도입한 시기이다.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까지 명칭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의 사서직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을 하는 학과의 명칭이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 바뀌고 교육기관의 목표가 사서보다는 정보전문가나 정보전문사서 등을 양성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교과과정에서도 컴퓨터관련 새로운 과목들이 많이 포함된 것을 변화로 볼 수 있다.

도서관계의 경향과 사서직 교육의 변화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이 두 관계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를 들어 도서관 자동화의 문제나 정보학과목의 출현들이 서로 연관이 있으며 심지어는 학과명칭의 변경과 도서관의 명칭 변경 시도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의 장을 사서직으로 보한다는 조항 때문에 골육지체에서 나온 발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근래에는 대학도서관까지도 학술정보센터로 바꾸고자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다른 하나의 발견은 미국의 도서관과 정보분야가 받아들였던 정보기술과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의 사용에서 최근의 상황을 제외하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정보학의 교육 즉 가르치는 정보학 관련 과목들에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프로그램 사이에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의 정보기술의 보급보다는 미국의 교과과정이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선진국으로부터 학문이나 이론을 받아 들이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도서관학이나 문헌정보학의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도서관 현장의 요구나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와 관련된 이론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론은 독특한 상황이 고려되어 제대로 파악이 된 후에야 올바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철저하게 이해되어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의 사서직 교육은 자연 발생적인 전통과 배경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도서관의 개념에서부터 교육제도에까지 매우 다른 환경에서 발생한 것들을 우리의 상황으로 이식해서 전개시키는 경험을 거쳐야 했

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아울러 변화과정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즉 대학원 과정의 교육이 대학과정으로, 도서관협회가 사서직 교육기관의 인가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사서직을 양성하는 학과 설립의 결정권을 갖고있어 왔으며, 미국의 교육이 도서관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적인 교육을 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미국의 교과서가 전달해 주는 이론을 주로 가르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미해결의 근본적인 문제가 파생되었을 수가 있다. 도서관의 개념과 교육의 철학을 철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개념들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주입시킨 도서관의 개념, 기능 및 역할은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것들과 다름이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추구해야 할 미래의 이상에 불과한 것들이 많았다.

간단한 예로 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의 개념을 이해하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직한 개념을 실현시키려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하고 요구하는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찾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남들이 성취해 놓은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데에 급급하였다. 그 결과가 정보기술의 단계적 도입은 생략하고 최선의 기술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이크로 자료의 활용이나 비디오 자료의 이용은 지금까지도 많은 도서관들이 외면하고 있으나 CD-ROM과 PC는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사용하는 것들이다.

정보센터라는 명칭도 좋고 정보전문가로 불리워도 문제는 없지만, 사회제도가나 실행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과 그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언어는 공동의 이해를 위한 도구로 보편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오해와 무리없이 받아들여지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과 정보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우리의 상황에 알맞게 정리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서나 정보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와 정보를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여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중간 매개자들인 것이다. 근래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정보브로커나 정보검색사들이 수행하는 일들도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도서관 사서들의 업무와 별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단지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최근에 이용가능해진 새로운 정보기술들로 과거의 사서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결과에 불과할 뿐이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온갖 형태의 기록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시키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제자리를 찾아야겠고 사서직의 교육기관은 도서관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적절한 전문직 사서와 교육기관들이 선호하는 명칭인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본분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Changes in Library Services and in the Education for Librarianship

Young-Ai Um *

〈Abstract〉

This paper traces the trends of librarianship and the changes in the education for librarianship during the 1950s through the 1990s. The purpose of tracing is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some relationships between library activities and education for librarianship, which are supposed to be closely linked and cannot be discussed separatel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ield and the cha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uring the same period are described to show how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has changed and how American library schools, whose system of library education was introduced into this country, have adopted new technologi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even in part, there were such relationship between libraries and library education as libraries' interests in library automation and library schools' provision of library automation course. It was also found out that the Korean library schools tended to follow the curricula provided by their American counterparts. Based on the findings, some suggestions are provided.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Social Sciences,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